

50주년 맞은 운문승가대 총동창회

9월 24일~25일 운문사 경내서

국내 최대 비구니 수행 도량인 청도 운문사(주지 일진)가 축제의 물결로 일렁였다. 운문승가대(학장 흥륜)이 졸업 50회를 기념하는 행사를 9월 24일~25일 운문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그리고 운문승가대 동문 스님 1천여 명이 참석해 승가대학 반백년의 역사를 되새겼다. 9월 24일 동문인의 밤에서는 능인중학교 교장 아용 스님 등 10명의 스님에게 자랑스런 동문인상을 수여하고 장기자랑 등 화합한마당을 가진 뒤 9월 25일 오전 명성 스님의 법문으로 회향했다.

현재에 이르렀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비구니 강원 중에 가장 많은 대중이 모여살고 있는 불교 교육의 산실이 운문사승가대다. 명성 스님께서 이렇게 평생을 받쳐 비구니 교육과 우리 종단에 발전에 큰 공로를 남기셨다. 50주년 행사가 열리니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비구니 도량으로, 또 좋은 교육도량으로 발전해주시길 바란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50회까지 1850명 졸업생 배출 회주 명성 스님 44년 강원 이끌어

이 수행정진하며 부처님께 귀의한 학인 스님들이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논강 중심의 자율적 능동적 교육을 늘 강조하고 있으며 임지발원(立志發願) 정진불퇴(精進不退) 유통교해(流通教海)라는 학훈을으로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다. 학감 진광 스님은 “50주년을 맞아 많은 동문 스님이 모여서 너무 감사하다.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이라는 청규를 엄격히 지키고 있는 운문 승가대학은 모든 학인들이 번뇌와 망상을 떨치고 바른



운문승가대학(학장 흥륜)이 졸업 50회를 기념하는 행사를 9월 24일~25일 운문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수행자의 생활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공양을 준비하는 등 선후배간의 훈훈한 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24일 저녁에 열린 동문인의 밤에서는 동문 정를 스님의 공연, 50회 졸업예정 학인 스님들의 하모니카 공연에 이어 선배들의 화답 공연 이어졌다. 또한 회주 명성 스님의 서예작품과 공예품, 소장작품 등을 전시하는 명성 스님 회고전이 10월 24일 까지 경내 삼장전에서 열린다.

한편, 화랑정신을 일깨운 원광법사가 신라말 중창한 운문사는 원광법사의 뜻을 계승할 전문기관으로 ‘원광화랑연구소’를 설치했다. 이번 50회 기념행사에서 현판식을 가진 원광화랑연구소는 11월 9일 운문사 대웅전과 선영당에서 학술대회를 갖는다. ‘원광법사와 화랑정신, 새천년 청년정신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진광 스님(운문승가대 학장), 박흥식(대구한의대 교수) 나시나카 겐지(일본 츠쿠바대 박사) 등이 참여한다.

정혜승 기자 bwjhs@hyunbul.com

신라의 종소리 세계 평화 기원

2013년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2013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이하 에밀레전)이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일원에서 10월 3일~ 6일까지 열린다. BBS불교방송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신라인들의 삶과 문화를 고스란히 재현한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에밀레전은 '대 신라왕국의 종소리를 다시 울리자'라는 주제로 신라왕국의 기상과 정신을 알리고, 우리 국민들과 온 세계가 화평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불교방송은 “지난 해 30만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던 것에 힘입어 올해는 대회의 규모와 내용을 좀더 내실있게 보강했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에밀레 박물관' '신라 문화체험 마당' '동시(東市)와 (西市) 재연' '신라 간등회(看燈會)' '전통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신라 저자거리를 그대로 재연하고 주제관인 에밀레 박물관 기와집으로 꾸며져 현장감을 더하게 된다.

에밀레 박물관에서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 이름난 종의 모형을 전시한다. 성덕대왕신종 모형과 일본 운주지 소장종, 선림원 출토종 등 현존하는 신라시대 범종의 모형을 만날 수 있다. 또 한국종과 외국종을 비교해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6t 무게의 대형 에밀레 모형종을 관람객들이 직접 타종할 수도 있다. 일몰 이후에 진행되는 '신라 간등회(看燈會)' 코너도 주목할만하다. 이는 한국 전통의 호시인 신라시대 간등(看燈)을 재연하는 행사로, 축제기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성덕왕릉의 12지신등과 황룡사 9층 목탑 등 50여 개의 대형 전통등이 첨성대와 어우러져 은은한 야경을 연출한다. 이밖에 전국 5개 대학교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신라 향가를 직접 작곡하고, 연주하는 '전국 대학 향가제', 승무와 선무도 등 스님들의 예술무대를 보여주는 문화공연, 명상음악가 홍순지와 국악인들이 꾸미는 명상음악 콘서트 등이 행사장 곳곳에서 다채롭게 마련된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2013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이하 에밀레전)이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일원에서 10월 3일~ 6일까지 열린다.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못은 그 사찰의 역사적 기록이다

한국의 전통정원에서 못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안압지로부터 조선시대 창덕궁의 부용지나 별서 소쇄원의 계류에 이르기까지 못이 없는 정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찰도 예외는 아니다. 『불국사고금창기』를 보면 불국사에 구품연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신라시대부터 사찰에 못을 파고 연을 심거나(연지) 그림자를 비치게 하여(영지) 불국이나 극락을 상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못물이나 못에 피는 연꽃은 극락정토의 표상이 된다. 『관무량수경』 '보배못 생각하는 관(寶池觀)'을 보면 극락정토의 못물이나 그 못에 피어난 연꽃의 수승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관경변상도를 통해 그러한 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찰에 못을 파는 것은 불교의 상징성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기후조절기능을 가지거나, 화재발생 시에 쓸 수 있는 방화수를 담아 두거나, 사역주변의 물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 건조한 땅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쉽게 습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라 못이고,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에서 불이 날 경우 물을 끄는데 쓸 수 있는 물을 담아놓는 장치가 못이며, 우기에 댕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조절하여 물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장치가 못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못을 조성하여 경관적, 기능적 요소로 활용한 사찰이 많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 못이 메워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 불국사 구품연지도 언제부터가 메워져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경기도 모 사찰의 원도방지 역시 수년전에 메워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현대로 오면서 사찰의 못이 일견 사치스러운 시설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못이 있으면 공간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최근 들어 사찰에도 소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 방화수도 필요 없고,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우기에 물을 조절하는 기능 역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나 오래전 사찰에 만들어져 세월이 담겨진 못은 단순히 상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필요해서 원형을 유지하거나 잘 관리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을 만들 때는 분명히 특별한 까닭이 있었을 것이므로 지금 그 못이 예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메워버리는 것은 사찰의 역사를 지우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오래 전에 조성된 고찰의 원도방지형 못이 지금은 메워져 과거의 모습을 잃고 말았다. 사진은 경기도 저사찰의 못 모습.

도량을 열고 지켜온 지 1219년, 세상을 비추는 가을 햇살 받으며
부처님의 법력으로 올해도 국화꽃 향기 머금은 축제의 문을 엽니다.
봉은사의 활짝 열린 문으로 발걸음 하셔서 가을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은사
1219주년
개산대재
불기 2557년

10월 5일(토) ~ 7일(월)
문의 : 02)3218-4812

주요 행사 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역대 조사 차례제	10월 5일(토) 11 : 00	대웅전 앞
봉은 탑 제막식	10월 5일(토) 12 : 00	부도전
정대 불사	10월 7일(월) 11 : 00	대웅전 앞
보우 대사 학술 세미나	10월 2일(수) 14 : 00	보우당
국화 축제	9월 16일(월) ~ 10월 13일(일)	진여문 ~ 법왕루
따뜻한 세상을 위한 행복나눔바자회	10월 5일(토) ~ 7일(월)	종루 앞 주차장

행사명	일시	장소
템플문화한마당	10월 5일(토) ~ 7일(월) (10 : 30 ~ 17 : 00)	종루 주변
봉은사의 빛·소리 그리고 향기 신도회 사진전	9월 29일(일) ~ 10월 13일(일)	종루 주변
'봉은사 시간의 강물' 추억의 사진전	10월 5일(토) ~ 10월 13일(일)	선불당 앞 임시법당
전통차 시연	10월 5일(토) 12 : 00 ~ 17 : 00	선불당
서산사명장학회 감사의 10년	10월 5일(토) 16 : 00	향적원
직장직능 연합수계법회	10월 6일(일) 14 : 00	법왕루